

# 신안 도초시금치 · 여민락수제간식, 한국슬로시티 대표 특산물 선정

## 한국슬로시티본부와 국내슬로시티 인증 도시 협업 사업

한국슬로시티본부와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는 한국의 국제슬로시티 가입(인증) 도시의 농·수·임산품(가공품 포함), 특산물, 공예품 등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국슬로시티 대표 특산물'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슬로시티 대표 특산물로 선정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슬로시티 가입(인증)도시로서 지역의 대표성을 띄며 전통성·지역성·환경성 부분을 고

려해야 하며, 둘째 대규모 업체보다는 중·소규모로 주민공동체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공동작목반에서 생산된 상품. 셋째 농·수·임산품의 경우 특히 환경적 부분을 고려(유기농, 토종 재배)한 상품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신안군은 도초(섬)시금치와 여민락수제 간식이 선정됐다. 다른 지역의 시금치보다 두꺼우며, 당도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도초(섬)시금치는 바닷바람을 맞고

서리나 눈을 맞아야 달달해지며 갯 땅의 기운을 받아 게르마늄, 철분과 엽산 함량이 높아 세계암연구재단에서 최고의 항암식품으로도 선정됐다.

여민락의 수제넛비는 조청에 버무려 수제로 성형한 후 오븐에 굽는 프리미엄 간식이다. 건강식 수제넛비는 無첨가물, 無방부제, 식재료는 국내산 대추, 신안 땅콩과 신안 감, 멸치 등을 첨가하여 풍미를 높였다.

한국슬로시티 대표 특산품을 생산



하는 업체 대표 및 직원은 브랜드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2년 단위로 재인증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슬로시티본부 관계자는 "품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

며, 한국슬로시티 특산물이라는 공동브랜드는 슬로시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상품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박정래 기자**

## 무안군 남약시장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무안군은 지난 8일 남약시장을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남약시장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이 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남약시장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자격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라남도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군은 지정서 전달과 함께 골목상권 장보기를 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의견수렴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착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도 상인회원과 함께 실시하며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같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백태연 기자**

## 영암 '근·현대사 사진전시실' 개관

### '영암 100년의 역사속으로' 1500여점 자료 수집 전시

영암군이 지난해부터 1500여 점의 자료를 수집해 '영암군 근현대사 사진전시실'을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의 생활·문화·교육·산업·공공기관 등 분야별 시대 변화상을 사진 기록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꾸며낸 이번 전시는 풍부한 사료와 전시자료의 생생한 현장감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군은 지난해 400페이지 분량의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근현대사' 책자

를 발간한 데 이어 영암의 역사를 반추하는 상설 전시장을 개관함으로써 고장의 역사와 발자취를 기록하고 홍보하는데 한발 더 나아갔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료를 기증해주신故 전관성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진전에는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왕인로 440) 내 영월관 2층에서 상설전시된다.

**/영암·김형두 기자**

## 해남,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전 주민설명회

### 14개 읍면 순회 상향식 개발계획 수립... 군, 청사진 마련

해남군은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일정에 대해 14개 읍·면 사전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지난 9일 화산면을 시작으로 14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사항의 정비와 중장기 개발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수용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등 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

시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화산면을 시작으로 12일 북평면, 13일 황산면·문내면·계곡면이 진행됐으며, 14일 현산면, 15일 화원면, 16일 북일면, 19일 산이면, 20일 삼산면·해남읍, 22일 송지면, 23일 옥천면 순으로 총 14개 읍·면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은 1,045.29㎢ 해남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에 따른 관련법 검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2033년 군기본계획안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존 군관리계획 자료를 관주도의 하향식 개발 계획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계획 지표를 수립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정립하고 해남군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 진도, 투자유치 최우수상 등 2개 분야 수상

###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상

진도군이 전남도 주관, 2022 전남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상 등 2개 분야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1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상,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투자유치 분야는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실현 실적, 기

업 애로사항 수렴·해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6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투자금액은 3255억원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480명으로 예상된다.

노력상을 수상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를 비롯 일자리창출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적극 추진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 강진,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0억 원 확보

### 다산청림연수원·다산박물관 정원조성...지역민 힐링공간 마련

강진군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생활권역 실외정원) 공모사업에 다산청림연수원과 다산박물관 2곳이 선정되면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이나 공공·다중이용시설에 정원을 조성해 생활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는 등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다산청림연수원과 다산박물관에 국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2023년 말까지 실외정원, 휴게시

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된다.

강진원 군수는 "생활밀착형 숲 공모사업으로 연수원과 박물관을 이용하는 교육생과 관광객, 군민들에게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녹색복지 실현과 정원문화 확산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 목포, 자원회수시설 건립 시민공청회 오는 28일 개최

### 소각처리방식·대기오염도 등 설명·토론

목포시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

다.

목포해양대학교 김도희 환경·생명공학과 교수가 주재자인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 소각방식별 시공 및 운영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해 소각처리방식(스토키, 열분해) 운영 및 효율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감소를 위한 대기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을 설명하고 자유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시민 건강권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 완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홍보·계도 기간 운영

지난달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 가운데 완도군이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계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되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없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 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업소 방문 및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선 방침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